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재단 동역자 여러분께,

어느덧 올 한 해도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곳 제주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기에, 더욱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동안 Covid-19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저희 서귀포 다봄집도 올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새해의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의 진행이 더딘 것을 보면 분명히 나이 때문임도 깨닫는 요즘입니다.

먼저, 올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며 몇 가지로 나눠 정리해 보았습니다.

1)올해 초까지 탈북자 교회를 도와, 제주 시청 앞 노숙자들을 위한 밥퍼 사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탈북자 교회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준 보람과 함께 사랑의 나눔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노숙자, 장애인 및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봄집에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는 돌봄 사역으로, 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 본인은 물론 그 가정을 섬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몇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3)선교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사역 공동체로서의 다봄집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사역자들을 위한 격려와 지지 그리고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공부하는 교육/훈련의 장소로 제공 되었습니다.

4)방과 후 틈새 시간과 토요일을 이용한 영어교실은, 동네 어린이와의 만남의 사역으로 계속 진행되어 온 다봄집의 주요사역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내년에 진행될 사역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1)내년 1월 3~6일(제주캠프), 10~13일(아산캠프)로 예정돼 있는 영어VBS캠프입니다. 그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되어 온 사역으로 주위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역입니다. 이는 미국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일부 프로그램을 들여와 영어찬양과 영어연극 그리고 게임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획된 방학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내년 여름방학 중엔 7월 말~8월 초에 영어VBS캠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2)휴가철 제주 방문 여행객을 위한 야외 오픈예배로, 동네 교회와의 협역을 통해 전도를 위한 예배 사역을 기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학교밖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쉼터 개념의 홈스쿨링 센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다봄집의 설립 취지이기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네 아이들을 위한 토요영어교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역은 저희 부부만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저희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의 만남과 모임을 통해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1)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요영어마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참석하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잘 전해지길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내년 1월로 예정된 영어VBS Camp(제주안덕캠프와 충남아산캠프)가 잘 준비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몇 명의 팀멤버가 지원을 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두세 명의 영어권 팀멤버가 더 참가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방학을 이용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어서, 겨울철 안전을 위한 특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여름 휴가철 야외오픈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주 교회들과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저희 다봄집을 거쳐 갔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다녀갈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 동역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저희와 함께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긍휼함 그리고 영적인 도전과 성장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물어볼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시길 기원드리며...

서귀포에서,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올립니다.

Dear Mission Foundation Partners, who truly love and respect you in the Lord,

This year is nearing its end. And it has been three years since my husband and I came here to Jeju. Looking back, I can see that everything was by God's grace, so I am even more grateful for your prayers and support.

In the meantime, as the COVID-19 situation has come to an end, our Seogwipo Dabom House is also busy reviewing this year's ministry and planning and preparing for the new year's work. But in fact, I don't have a lot of special work to do, and when I see this slow progress, I realize that it's definitely because of my age.

First, as we look back at this year's work, we've broken it down into a few things.

1) Until the beginning of this year, we have been helping North Korean defector churches and conducting a bopper ministry for the homeless in front of Jeju City Hall. The North Korean defector church itself was able to experience the sharing of love and the rewards of encouraging and supporting them to help those who are more difficult than themselves.

2) It was a care ministry that brought the homeless, the disabled, and those in need of care to live with them, and it was about serving the families as well as the people who needed care. Some in particular were overflowing with the Lord's grace and had great joy in returning to their normal lives.

3) By fulfilling the role of Dabom House as a ministry community with missionary workers, it has been provided as a place of encouragement and support for the ministers, as well as education/training to read and study the Bible together.

4) English classes using after-school breaks and Saturdays are one of the main ministries of Dabom House, which has continued as a ministry of meeting local children.

Next, it is a ministry that we are praying and preparing for next year.

1) English VBS camp scheduled for January 3~6 (Jeju Camp) and 10~13 (Asan Camp) next year. It is a ministry that has been postponed due to the corona situation and is highly anticipated by the surrounding area. This is a vacation program designed to help students learn and know God through English praise, English plays, and games, incorporating some of the Sunday School summer Bible school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For reference, there will be an English VBS camp in late July ~ early August during the summer vacation next year.

2) It is an outdoor open worship service for travelers visiting Jeju during the holiday season, and we are praying while planning a worship ministry for evangelism through cooperation with local churches.

3) We are planning a homeschooling center with a shelter concept for multicultural youth outside of school. This is not only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our Dabom House, but it is also connected to the Saturday English class for local children that we are currently conducting. However, this work is not possible on our own, so we are constantly looking for specific plans and ways through meetings and meetings with people who share our hearts.

Finally, I will share a prayer request.

1) Please pray that the current Saturday English Yard will proceed well in God's grace and that the Lord's love and gospel will be well shared with the children who attend.

2) Please pray that the English VBS Camps (Jeju Andeok Camp and Chungnam Mountain Camp) scheduled for January next year will be well prepared and implemented. So far, several team members have volunteered and are preparing for the event, but we are hoping and praying for two or three more English-speaking team members to participate. In particular, this is a program that takes advantage of the winter vacation, so please pray for safety in winter.

3) We ask for your interest, prayers, and advice for outdoor open worship during the summer vacation. In particular, please pray for cooperation with Jeju churches.

4) Pray for the Lord's grace, mercy, spiritual challenge, and growth as long as you are with us, including all those who have passed through our Dabom House and will be there in the future.

It's not enough, but I've summarized it briefly.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So may you always be strong in your grace...

In Seogwipo,

Lim Chul-hyun and Lim Yoon-sil